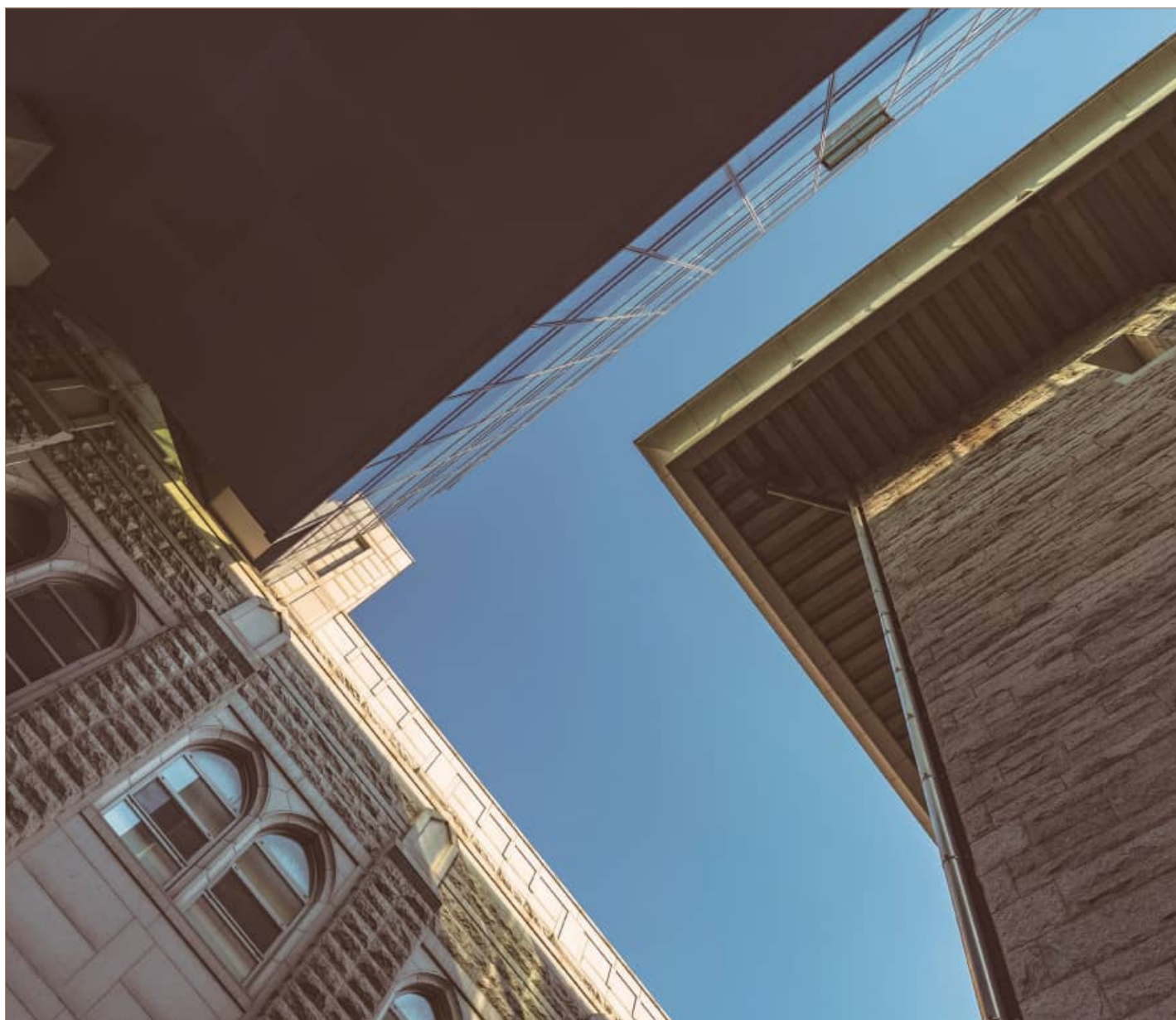


2021
No.111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에너지의 가능성을 넓히는 변화의 시작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GS칼텍스**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플러스'를 시작합니다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차량 자동인식, 주유 간편결제로 편리함을 높이는 에너지플러스 모바일서비스
(비콘인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EV충전, 수소충전, 마이크로모빌리티, 물류거점 서비스 등)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



SK텔레콤의 AI 서비스가 새로운 생활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집과
당신의 목소리 하나로 시작되는 서비스

누군가에겐 자신을 먼저 챙겨주는 가족이자
누군가에겐 다정한 친구이고 말벗

내 취향을 기억하고 추천해 주는 플랫폼부터
필요로 하기 전에 알아서 돕는 기술까지

모든 순간 AI가 함께 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모두의 생활을 위해
SK텔레콤은 당신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고 확인 필요.
작하단 광고 게재인
없어도 되는지.

4

Anytime
Anywhere
I will take you!



MIGHT & MAIN(주)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

www.mmcorp.com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1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월 25일(월) 14:0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비대면으로 진행
4월 15일(목)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비대면으로 진행
5월 12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선물로 대체
5월 말	제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L-P경영관
7월 초 18:00	야구부 후원금 전달	총교우회 주관 장소
9월 18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참살이길
10월 7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미 정
10월 21일(목)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미 정
11월 말	제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L-P경영관
12월 2일(목) 18:20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05_ 제9대 이덕한 교우회장 신년사

08_ 회칙개정 및 주요내용

10_ 학위수여식 현장

14_ 추모의 글

20_ 교우기부

21_ 학년별 소식

26_ 연대별 소식

29_ 교우신간

30_ 교우동정

34_ 경영대학장 인터뷰

38_ 경영대 소식

40_ 장학금 수여 현황

41_ 모교 소식

47_ 명부 제작 소감

48_ 건강칼럼

50_ 교우기고_수필

52_ 교우기고_시

53_ 회비납입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1 통권 제111호 Vol.33

발행일 2021년 4월 23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덕한

편집인 신학기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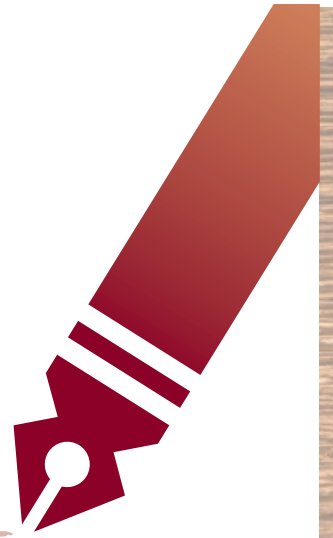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의 발자취



1982년

- 1월 제1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개최
- 11월 '경영대학 후원회' 설립

1987년

- 경영대학 교우회로 명칭 변경
- 김상홍(상41) 초대회장 취임
- 본격적인 장학금 모금을 비롯하여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 활동 시작

1989년

- 김동기(상54) 교수를 주축으로 경영대학 내 교우회 사무실 마련
- 연회비 납입 시작

1991년

- 제2대 구두회(상49) 회장 취임
- 교우회보 '호상' 창간 (연2회 발간)

1997년

- 제3대 이양섭(상57) 회장 취임
- 선상균(상57) 사무국장 취임
- 경영대학 교우회 운영을 교수 중심에서 분리하여 별도 사무국 개설
- '호상' 타블로이드판으로 지면 확대, 연 6회로 중간 발행
- LG-POSCO 경영관 신축 지원
- 책걸상 기금 모음

2003년

- 제4대 정장호(경영59) 회장 취임
- 정규복(경영59) 수석부회장 취임
- 상임이사회 중심에서 참여하는 교우회로 조직 운영 개편
- '호상' 카다로그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경, 분기별 발행
- 명예교수 사은회 개최

2007년

- 제5대 김승유(경영61) 회장 취임
- 김순구(경영61) 수석부회장 취임
- 교우 명부 제작, 배포
- 멘토링 사업 지원
- 609, 709모임 발족

2010년

- 제6대 허창수(경영67) 회장 취임
- 박우양(경영67) 수석부회장 취임
- 809모임 발족
- 교우회 홈페이지 오픈

2011년

- 사업자 등록
- 걷기대회 개최
- 909모임 창립

2012년

- 여교우회(KUBS Ladies) 창립
- 회장 이충진(경영81)

2013년

- 제7대 나완배(경영70) 회장 취임
- 심재중(경영70) 수석부회장 취임
- '호상' 개편, 활성화

2015년

- 동기회 회장단 초청 야유회 개최

2016년

- 매월 생활장학금 지급

2017년

- 제8대 정몽원(경영74) 회장 취임
- 구자형(경영74) 수석부회장 취임
- '호상' 지령 100호 발행
- 909모임을 위한 지원 확대
- KUBS Ladies 활동 지원

2018년

- CEO만남의 날 개최

2019년

- 909 모교방문의 날 개최

2021년

- 제9대 이덕한(경영77) 회장 취임
- 신학기(경영78) 사무국장 취임

제9대 경영대 교수회장 '신년사'

지난 2020년 10월 15일 경영대 교우회 상임이사회에서
제9대 교수회장으로 선출된 경영 77학번 이덕한 인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 모든 경영대 교우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고려대 경영대학의 역사는 바로 혁신의 역사입니다.
1937년 경영경제 과목 국내최초 개설, 1955년에 국내 최초 경영학과 설립,
1963년에는 경영대학원 국내 최초 설립 등, 우리 대한민국에 서구
근대 경영학 교육을 도입한 선구자가 바로 우리 고려대 경영대학입니다.

지난해에는 영국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고려대학교가 전체 순위 11위, 국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스런 모교를 위해서 우리 경영대 교우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 교우님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대 발전에 기여하고,
재학생 후배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우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회장님들에 비해서 능력도 없고,
여러모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서지만,
그 동안 "미래로 함께 가는 교우회" 라는 슬로건 아래 90년대 학번,
그리고 여성교우들의 교우회 참여에 힘써 오신 전임 정몽원 회장님의 뜻을 계승하여
교우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새해에도 모든 교우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회장 이 덕 한

2021년도 교우회 기본 운영 방침

- ① 인력 1명 감축, 행사 간소화 및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억제하여 최대한 예산 감축 운영
- ② 경비절감 및 정보화 추세 감안 호상지 발행부수 감축
(약 10,000부 ▶ 3,100부) 및 웹진으로 전환
- ③ 회비 납부의 편의성 제고로 회비 수입금액 증대
·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이체, 무통장입금 등 기능토록 개편
- ④ 코로나 사태 관련 상반기 중 대면 행사 실시 최소화
- ⑤ 교우회 각 소모임별 조직 활성화 적극 지원
· 809, 909, KUBS Ladies 모임 주선 및 지원 강화
- ⑥ 교우의 밤 행사 시 주최 학번의 모금액 중 20%를
교우의 밤 행사비로 대체
· 주최 학번의 모금액 중 일부 찬조는 2018년도부터 시행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회칙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I. 개정 사유

- 1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면회의가 곤란함에 따라 각급 회의의 소집 통보 수단 신설, 출석 및 개최형식의 다양화 필요
- 2 매년 12월 중 교우의 밤 행사 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행사의 성격 상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 반영
- 3 현재 회칙에는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연임하고 있는 현실 반영
- 4 2019년 5월부터 수석부회장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사무국 업무의 관장 및 회계보고 업무에 사무국장 추가
- 5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관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내용 추가
- 6 기타 용어의 통일, 내용 정비 및 명칭의 명확화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II. 교우회 회칙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장 임원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정기총회 이전에 회장을 선출한다.	조 올림 · 현재 관행적으로 연임하고 있는 현실 반영 내용 수정 · 회장의 유고 시 내용 신설
제18조(임원의 직무)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이 특별히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임원의 직무)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 시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	조 올림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 시 내용 신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4장 회의와 기관	
제21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제20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조 올림

현행	개정(안)	비고
①상임이사회는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상임이사로서 구성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상임이사회는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서 구성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 방법 추가
제22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제21조(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조 올림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 방법 추가
(신설)	제22조 (각급 회의의 소집 방법 및 개최형식)	
	①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이하 "각급 회의"라고 함)의 소집은 서면 또는 전자매체 등 사회통념 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단으로 통보한다.	소집 통보 수단 신설
	②각급 회의의 출석 및 개최형식 등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화상 및 전자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매년 12월 중 교우의 밤 행사 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행사 성격 상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출석 및 개최형식의 다양화 필요
	③비대면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같음한다.	
제5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제23조(사무국)	
②사무국은 회장이 위촉한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②사무국은 회장이 위촉한 수석부회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촉한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수석부회장이 없는 경우 사무국장이 사무국 업무 관장
제6장 재정		
제26조(회계보고)	제26조(회계보고)	
수석부회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석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용 정비
(신설)	부칙 제3조 (제2차 개정회칙 시행일) 본 회칙은 정기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	부칙 신설
(신설)	부칙 제4조 (경과규정)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총회 의결 전에 이루어진 비대면 회의에는 개정된 제22조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신설



2021년도 제114회 학위수여식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고려대학교는 2월 25일(목) 제114회 학위수여식을 인촌기념관에서 정진택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졸업생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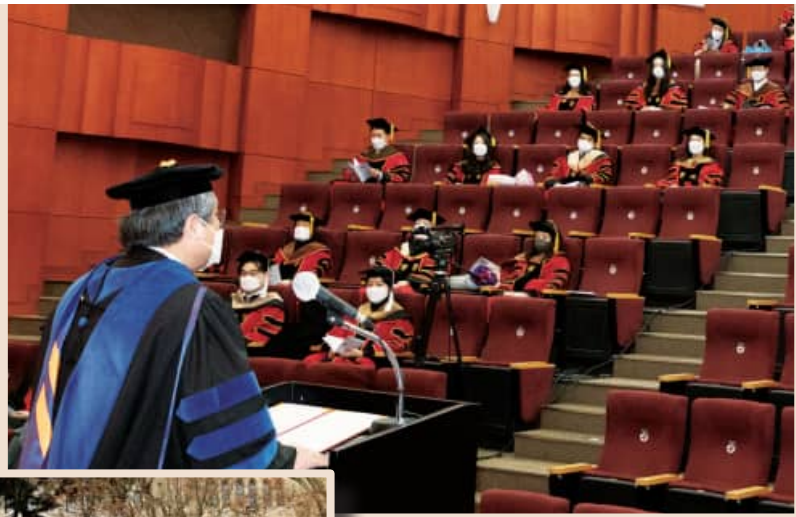
지난해는 학위수여식과 입학식 모두 취소되었고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는데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모교는 학사 4280명, 석박사 2081명 등 총 636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아쉬운 작별과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꿈을
축하합니다.

”



경영대학(원)도 24일~25일 113회, 114회 학위 수여식(2020년 전기 졸업생을 비롯해서 2019년 전·후기 졸업생까지 포함)을 LG-POSCO경영관 SUPEX홀에서 졸업생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 중계로 진행하였다. 학위수여자는 △학사 403명(이중전공, 복수전공 포함) △석사 42명 △박사 10명 △Korea MBA 174명 △Executive MBA 49명 △Finance MBA 27명 △S³Asia MBA 16명 △Global MBA 7명 총 728명이다.

작년에는 학위가운 대여도 취소되었지만 올해는 열흘가량 일일 대여신청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진행되었다.

졸업생들은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과 추억이 가득한 장소를 배경으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졸업 축하 세레모니로 학사모를 던지며 아쉬워하던 학교생활을 마무리하였다.



故
김 동 기
교수님 詩

사진 : Communication Team



旗

김 동 기

너를 볼 때마다
파란 연기처럼 오르고 싶은 마음
나는
너의 호흡이
너의 세계가
못 견디게 그리워서
그만 네가 되어 본다
너는 나를 키워준
또 하나의 어머니
비록 旗는 바람에 찢기고
는 보라에 헐리었어도
여기 내가 旗를 올리면
旗는 또한 나를 올린다

一九五四年 안동고등학교
三학년때 재(회)학원토화상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작품



청천에 펴려이는 열정의 깃발

- 은산(殷山) 김동기 선생님을 추모하며 -



이두희

경영76
경영대학 교수

아! 선생님.
선생님의 시구가 오늘 따라 마음을 울립니다.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어머니
오늘도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워
저 먼 하늘나라에 가 계신 당신께
새처럼 날아가 안깁니다”(어머니)

곤지암 소망의 동산에서 선생님을 보내드리면서
손바닥에 남은 그 열정이 여전히 마음을 적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세대 봉직 시부터 항상 흠모하고 존경해마지 않던
김기영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영광스
럽지만, 아직 제 생각이 어려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명예교수님들
께 고견을 구해 본 결과 제가 꼭 써 줘야겠다는 마지
막 말씀에 감히 승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은산(殷山) 김동기 선생님을 1977년경에 마케팅
원론 학부 과목의 학생으로 처음 뵈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의 신선한 감동과 충격은 저를 새로운 관념의 세
계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이 후의 유학과정에서 마케팅을 제 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대로 마케팅 교수로서 70년대의 그 감동을 오늘날의 새로운 영감으로 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선생님께서선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태생하시었고 문학적 감수성이 특출하셨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이미 동서고금의 작품들을 탐독하고 괴테의 시 수십 편을 독일어로 암송하셨습니다. 이 후 시와 수필을 발표하셨는데, 1954년에는 월간 학원에서 공모한 제1회 학원 문학상 시 부문에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이 때 심사자는 조지훈 선생님 등이셨습니다. “기(旗)”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그 어려웠던 시절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깃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안동고등학교 교정에 시비로 우뚝 서서 기개와 희망의 상징으로 영원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마케팅 학문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여오신 선각자 중 한분이십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당시 신생학문이었던 경영학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분야였던 마케팅을 도입하신 선각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자들이 세계적인 마케팅 이론 개발의 선두에 설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글로벌 기업들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개척자로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여 사회에 아낌없이 나누신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제자와 인사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빈소를 찾아 선생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학계 인사는 물론이고,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문규영 아주그룹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를 이끄는 많은 리더들이 빈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꼽힐 학계의 지도자로서 지대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일찍이 고려대학교 최초로 1960년대부터 전공강의를 영어로 하셔서 국제적 인재 육성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이 때 영감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을 이끌며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전공강의는 2003년부터 고려대학교 전체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경영학과 국제학 연구와 교육의 기틀을 구축하셨으며, 2개의 건물을 건축하는데도 주도적 공헌을 하셨습니다.

한국경영학회장, 한국마케팅학회장, 한국상품학회장, 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으로 학문발전에의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되셨고, 2018년에 제 38대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으로 선출되어 봉사하는 재임 중에 계셨습니다. 뜻밖에 별세하시는 때까지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술원에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선생님께서 학술원 연구비 예산의 감소를 걱정하시면서 모금활동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서번트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을 보여주심을 잊을 수가 없는 큰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열정의 표상'으로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귓전에 은은히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것
종소리는 아침이슬처럼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는데

아
나는 어떤 소망의 종소리로
울려 퍼져야 하는가”(종소리)

선생님의 시에서 스스로 던지신 질문을 보니 왜 그리도 열정적이셨는지 약간은 짐작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철학과 실천에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 열정의 긍정적 에너지는 끝없는 공명으로 우리 사회에 꺼지지 않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생님께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경영대학장으로서 최초로 '경영대학의 밤'을 창안하시어 장학금 모금을 위해

당시 전혀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이 행사는 현재 큰 자부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대학에도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학장과 학회장을 하시는 동안에는 수많은 인사들과 기업들을 접촉하시고 협력을 이끌어 내시는 놀라운 추진력에 감탄을 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30대 초반의 초년생 교수였을 때 선생님께서는 초대 국제대학원장으로서 저를 강사로 초빙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현재를 건너가는 선상에서 강의를 하는 선상대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조류와 파도로 인한 심한 배 멀미로 기력을 다한 상태에서 귀국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초대 원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활로를 개척하신 것이었습니다. 젊은 제가 육체적으로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경영학적 리더십을 몸소 헌신적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경(敬)과 지혜의 실천자이시자 상징이십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닦고 타인의 마음을 위하는, 고귀한 경의 경지를 늘 치열하게 추구하시던 선생님의 내면을 당신의 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지금
어느 하늘 어느 곳에서

별처럼 아롱진 눈망울로
사슴처럼 길게 목을 뽑고

뚫어지듯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까?”(내 마음)

팔순을 넘으신 연세에도 은인이자 선생님들께 세배를 가실 정도로 공경과 예를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보

통 사람들은 참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들 나이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행일치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줄필이 선생님의 고귀하고 위대하신 면모를 어찌 일부라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인품과 능력과 업적에 감히 이 줄필이 큰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당신 스스로에게 엄격하시고, 남을 항상 공경하시고, 언제나 개척자이시며, 제자들을 극진히 위했던 스승이시며, 사회에 지혜를 나누는 현자이자 지도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은산 김동기 선생님께서는 영원히 ‘청천에 펼쳐이는 깃발’이십니다.

“너는 나를 키워준
또 하나의 어머니
비록 기는 바람에 찢기고
눈보라에 헐리어도

여기 내가 기를 올리면
기는 또한 나를 올린다”(기(旗))

삼가 선생님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빕니다.

출처 : 학술원통신 (제331호)

미국거주 교우 추모편지

I was very surprised for Professor Kim's passing message.

I want to add my message on
<https://samga.co.kr/obituary.do?bn=170722>

Kim Dae Won, Business Adm '63, from Greenwich, Connecticut, USA
God bless you, Professor Kim.

I was Professor Kim's first Teacher's Aid.

He was an extremely smart and excellent educator. He has been my lifetime mentor.

His inspiration stayed with me forever. I have MBA from Northwestern Univ.

I have not seen any better professor than him at U.S. Top Business Schools.

He visited my house about 15 years ago.

My deepest condolence to Mrs. Kim(Oh) and his entire family.

Thank you.

Dae won Kim (상63)



출생 - 별세 1934.6.28 - 2020.12.15

학 력	~1974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63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53~1958	고려대학교 상학 학사

경 력	2018.4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2016.4~2017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
	1998~2000	일본 오카야마상과대학원 객원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1997.7	대한민국학술원 인문사회 제6분과 회원
	1996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환교수
	1990~1996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1965~1991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학과장, 학장, 경영대학원장







- 1 강의실에서
- 2 제13회 호상의 날 영어웅변대회
- 3 제1회 경영대학의 밤 (1982. 1)
- 4 아이젠하워 펠로로 방미(訪美)시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을 예방 (1980. 5)
- 5 아이젠하워 펠로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함께 (1980. 5)
- 6 《제3의 물결》 알빈 토플러 박사와 함께 (1998. 3)
- 7 신축된 LG-POSCO 경영관에 헌정된 '김동기 세미나실' 앞에서 (2006. 5)
- 8 도쿄 포시즌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한일 경제협력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2009.11.3)
- 9 명예교수 사은회에서 (2019. 5. 10)

사진제공 · 김동기 교수님 가족



유휘성 · 상58

의학발전기금 10억

유휘성 교우는 2011년부터 신경영관 건립기금, 인성장학기금 등에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왔다. 누적기부액이 64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기부된 의학발전기금(10억원)은 코로나19 극복과 심혈관질환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승명호 · 무역74 · 동화그룹 한국일보 회장

정릉K-BIO캠퍼스에 30억

승명호 교우는 2001년부터 신경영관 건립기금, 경영대학 건축기금, 학교발전기금, 코로나19 퇴치기금을 기탁해왔다. 누적기부액이 67억6000만원에 이른다. 승명호 교우는 모교가 조성 중인 정릉K-BIO 캠퍼스에 30억을 기부하여 신종감염병 연구에 뜻을 같이했다.



유정준 · 경영81 · SK E&S 대표이사 부회장

창의발전기금 1억

유정준 교우는 1995년부터 백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체육위원회 발전기금, 경영대 발전기금, 모교방문기념 학교발전기금, SK미래관 기금을 기탁해왔다. 청암장학회 명의로 기탁된 창의발전기금은 매 학기 2명(경영대 1명, 문과대 1명)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55 회장 이득주

그동안의 55학번 동기회 소식 ●●●

55학번 同期會가 結成된 것은 아마도 47년 전인 1974년(?)경일 것이다. 結成은 되었지만 활동은 미미하였다. 몇 년이 지나 1984년(?)경 새로 임원진이 구성되고 조직이 강화되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는 영남, 호남, 충청 등지로 연 2회(춘추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발전소 혹은 지역명소를 관광하고 현지에서 1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제도에 있는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것은 산업시찰의 면모를 갖춘 뜻있는 행사였다. 최근 5년 내에는 年 1회 정도 여행을 하고 신년인사회 등의 행사로 동기회원간 돈독한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2015년(?) 입학 60주년 기념으로 중부지역을 단체로 여행할 때,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이 단체의 성격을 묻고는 깜짝 놀라며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忠孝의 고장 天安을 탐방했다(小生の 초청). 독립기념관, 아우내장터,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장 이동령 선생 기념관 등을 탐방해서 선열들의 애국심과 민족애를 고취하는 기회도 가졌다. 2019년(?)에는 중부내륙 도담삼봉 등 명소를 방문하여 즐거운 한 때를 가졌다. 2020년도 신년인사회 이후 코로나 사태로 제반 행동에 제한을 받아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다. 주소지 변동, 전화번호 변경으로 그동안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던 차, 회원명부를 20년 만에 재정비 하는 것으로 작심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명부로 잊었던 동기 다수를 찾게 된 것은 뜻밖의 소득이었다. 또한 동기회 단체 활동 외 개인적 활동으로 유상욱 회장과 이석호 회장이 종종 작고하신 교수님들의 산소를 참배하는데 그것은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안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小生과 함께 윤병욱 교수님과 조익순 교수님 산소를 참배한 것은 동기회 활동의 뜻있는 작은 흔적이라 생각된다.



회장 이득주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입학 60주년 및 팔순 행사 계획 ●●●

2021년 3월 10일 11시 30분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6출구 150m 앞 퓨전 식당 "해초록"에서 정시균 동기회 회장 초청으로 감사 : 엄무성, 최민자, 총무 : 이채영, 그리고 소모임 회장단 3명(초암회 : 강승열, 도암회 : 김실, 사목회 : 박인우)이 만나 오찬 모임을 갖고, 2011년 7월 '입학 50주년 겸 칠순기념 백두산과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한 데 이어, 2021년에 '입학 60주년을 맞고 또한 대부분의 동기생들이 팔순이 되는 것을 자축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각 소모임 별로 사전에 조사한 참가 예상 인원이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축하행사를 추진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1월경에는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맞춰 계획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 날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사 일시 : 2021년 11월 중
 2. 참가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3. 행사 내용 : 2박 3일 KTX 이용 국내 명산지 여행
 4. 참가비 : 추후 확정 시 통보
 5. 기타 :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시 행사 재검토
- 다음 회의에서는 여행 세부계획과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62 회장 이호웅 / 총무 한상욱

62학번 동기회 회장단 ●●●

2019년 1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김효명 동기가 2020년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취임 수락 연설을 할 때 2021년 회장으로 이호웅 동기를 추천하였고 동기 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함으로써 2021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감사와 총무는 송기현 동기와 한상욱 동기가 2021년에도 연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장 이호웅



69 회장 이재선 / 총무 조현룡

월례산행 (번개산행도 추가) ●●●

- 2020년 11월 7일 (토)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 2020년 11월 21일 (토) 불암산 5능선 경유, 4능선으로 하산
- 2020년 12월 5일 (토) 어린이대공원 외곽길
- 2020년 12월 19일 (토) 도봉산 자운봉
- 2021년 1월 9일 (토) 청계산 옥녀봉
- 2021년 1월 23일 (토) 관악산 연주대
- 2021년 2월 6일 (토) 어린이대공원 및 옥녀봉
- 2021년 2월 20일 (토) 광교산 형제봉 경유 시루봉
- 2021년 3월 6일 (토) 어린이대공원 외곽 3시간 반
- 2021년 3월 20일 (토) 도봉산 다락, 포대능선, 망월사
- 2021년 4월 3일 (토)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특히 2021년 4월 3일은 장대 비 중에서도 대공원 둘레길을 강행군한 바, 우산 위가 벚꽃잎으로 덮여 꽃 우산이 되었고 비로 인하여 한없이 흠날리는 꽃비는 마치 오페라 나비부인의 한 장면 같았다.

이덕종 동기 일시 귀국 ●●●

일찍이 1998년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리조트 사업 등으로 자수성가한 바 있고 성실한 기업가 정신으로 대한민국과 고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이덕종 동기가 유명 셰프인 장남 이원일 결혼식 행사로 무려 22년 만에 일시 귀국하여 69학번 동기들과 만나 회포를 풀었다.



74 경영회장 조철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11월 남산걷기 ●●●

· 일 시 : 2020년 11월 7일 (토)

여느 때처럼 남산걷기를 위해 대한극장 앞에서 모였다. 코로나19사태로 참석인원이 줄었으나 우리 동기들은 구자형 사무총장의 출발신호에 따라 남산으로 향했다. 남산의 늦가을 단풍은 절정에 다달은 것 같았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단풍행객들이 남산에 모여 질어가는 가을 단풍을 아쉬워해가며 단풍놀이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산에서 내려와서 모 냉면집에서 우리들의 단풍메뉴인 편육, 빈대떡 그리고 냉면 등 식사와 막걸리, 소주로 여흥을 즐겼다. 한호석 남산회장은 12월 5일에 만나는 12월 모임 때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만나 북촌을 걷자고 제안하여 다음 모임에는 새롭게 2시간 동안 북촌걷기를 하고 나서 천하보쌈집에서 맛난 식사를 하기로 하고 각자 헤어졌다.



경영74 12월 북촌걷기 ●●●

· 일 시 : 2020년 12월 5일 (토)

경영74 동기들은 이번에는 늘 가던 남산둘레길을 벗어나 참으로 오래간만에 북촌걷기에 나섰다. 북촌걷기를 위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마스크로 철저히 무장하고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였다. 한호석 남산회장이 원서동부터 이곳저곳을 자세히 설명하고 창덕궁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 인촌선생 고가도 보고 계동언덕에 위치한 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철래 동기회장의 중앙고 이곳저곳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모교와 비슷한 학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석탑건물-감사원-베트남대사관을 지나 삼청동으로 들어서 다시 지금 정독도서관으로 변한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경기고 졸업생 진영삼 동기의 안내 후 단체사진을 한 컷 찍고 다시 윤보선 생가를 지나서 북촌에 위치한 어느 맛있는 보쌈집에 들러 가벼운 경영74 송년모임을 갖게 되었다. 구자형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호석 남산회장의 건배제의가 있었으며 오래간만에 만난 모든 동기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는 동안 동기들이 서로의 근황을 말하고 듣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다. 식사 후 당구팀들은 당구장으로 향하고 몇몇 동기들은 안국역에 위치한 '브람스'란 옛날다방에 들러 차 한 잔 마시고는 각자 집으로 향하였다.



경영74 제1회 비대면 건강걷기대회 실시 ●●●

· 시 행 : 2020년 11월 1일 (일) ~ 2020년 11월 30일 (월)
· 참 여 : 74동기 40명
· 기록수집 : 구자형 총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많은 동기들이 참여한 '비대면 건강걷기대회'를 마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이번 '제1회 비대면 건강걷기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스타일을 현실에 적용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철래 동기회장과 회장단의 격려, 많은 동기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별히 비대면 걷기대회를 통하여 평소에 걷기운동이 뜸한 동기들이 차타고 가야하는 거리도 걷고 있으니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우리도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온라인으로 서로 서로 소통하는 것을 실행했으니 이것만해도 우리 경영74 동기들에게 많은 소득이 된 것 같다. 어제 조철래 회장과 점심식사하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이러한 '비대면 건강걷기대회'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렸다. 경비면에서는 동기회장, 명예회장, 각 수석 부회장들이 조금씩 찬조하여 동기들이 즐겁게 건강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코로나 사태동안 2~3개월에 한 번씩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번 2월 한 달 동안 '제2회 비대면 건강걷기대회'를 거행하려고 한다. 제2차 대회는 조철래 동기회장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상금은 없이 참가상 1만원으로 하고 즐겁게 참가하여 열심히 걷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우리는 2월 대회와 각자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기로 했다.

* 비대면 건강걷기대회는?

구성원 모두가 어떤 장소에 집합하여 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동기들 각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APP(만보기)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걷은 걸음수의 총량을 집행부에 보고하여 일정거리 총량 이상을 걷는 동기들에게 공평하게 약속한 상상을 함으로써 동기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경영74 제2회 비대면 건강걷기대회 실시 ●●●

경영74 동기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던 차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금년도 '비대면 건강 걷기대회'(준비위원장 : 구자형 사무총장)를 2월 한 달 동안 개최하였다. 이에 미국, 캐나다 거주하는 동기들까지 포함하여 무려 37명이 참가했다. 전체 37명의 동기들이 걷은 걸음 수는 11,359,587걸음이 되며 1인당 평균 307,016걸음이 되었다. 또한 동기회장은 사비로 모든 동기들에게 참가상을 주어 동기유발을 시켜 주었으며, 회장단의 고맙고 감사한 동기에 정신이 일일 일 만보 걷기의 습관이라는 장중함으로 다가왔다는 동기들의 참여 소감도 있었다. 이로서 경영74 동기회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대면 걷기대회를 자주 열어 동기애를 고취시키고 무엇보다도 동기들의 건강을 함양시키는 대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78 회장 흥 승

골프모임 (골프회장 : 하경래) ●●●

지난 4월 15일 동기들 중 특히나 부지런한 조정환 동기 덕분에 춘천 소재 더플레이어 스크에서 번개모임 골프를 즐겼다.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에 43년 친구들과의 라운딩은 꼭 어린애들 봄 소풍처럼 다들 즐거워하고 끝나면 또 그렇게 아쉽다. (사진 왼쪽부터 조기한, 주일성, 조정환, 오대용)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78호상 골프모임'의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 골프 좋아하는 동기들과 가끔 안부 통화를 하면 골프모임을 빨리 다시 시작해서 한 번 붙자고 다짐한다.

잠깐 그 동안의 '78호상 골프모임'의 지난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골프 좋아하는 동기들 10여명이 모여 청주 그랜드CC에서 첫 라운딩을 했고, 두 번째 모임에서 정식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2002년 10월이었다. 78학번 모임이니 당일 성적순으로 7등이 회장을 하고, 8등이 총무를 맡는 것으로 하여 초대 회장은 이정열, 총무는 정주섭 동기가 되었다. 그랜드CC의 사장인 임재풍 동기가 동기들에게 배운 배려로, 우리는 당시 부킹이 어려웠던 토요일 아침시간에 그것도 회원대우 가격으로 매달 그리고 3년 정도 운동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 후 관계 당국의 지적으로 회원대우는 안되고 일반 그린피를 지불해야 했는데, 이 그린피 문제로 임재풍 동기가 동기들에게 미안하다고 매년 연말 행사 때마다 200~300만원을 냈던 것이 참으로 고마웠었다. 78호상 골프에서 '머리올린' 이정열 동기는 한때 싱글 handicapper로 사업해 돈도 벌고 골퍼해 용돈도 버는 재주를 갖게 되는데, 아마 호상 골프모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동기일 것이다. 김동원 교수는 머리는 다른 데서 올렸지만, 호상 골프모임에서 실력을 연마하여 지금은 '짤 보기플레이어'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초창기 골프레슨 기사를 스크랩하여 동기들에게 1년 여 동안 나누어 준 이원호 동기도 생각이 난다. 골프운동 모임을 통하여 20여년 시간 동안 동기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애들은 어떻게 커 가는지 이야기 하면서 잘 지내온 것 같다. 회원으로 등록된 동기들이 63명인데 지금은 대략 20여명 정도 관심 있게 모임 참석을 하고 있다. 현재 모임 회장은 하경래 동기다. 우리는 이제 청년 63살 ~ 65살 나이이다. 코로나19 잠잠해 지면 다시 모임 재개하여 재미있게 살자. 연습들 많이 해라. 이제부터는 '뽑기 게임' 대신에 바로 '조폭 게임'으로 시작한다. 위 언급된 동기들 이외에 골퍼에 불타는 열정을 가진 멋진 동기들 이름을 불러 본다.

“한덕철, 하경래, 이은우, 이익중, 흥 승, 허광석, 김 열, 류한호, 유재권, 정주섭, 이왕규, 차선영, 김승중, 함종호, 정세중, 이흥영, 이윤찬, 이진철, 조강직, 신학기,...”(절대 핸디캡 순서 아님)



동C회 결성 : ㈜켄비텍 김일용 동기를 만나다 ●●●

황순하(동C회 회장), 유병안, 윤장섭 3인은 코로나 이후 동기들 모임이 쉽지 않아 답답해하다가 동C회를 조직하였다. 동C회는 78학번 경영 동기 중에서 현재 CEO직을 수행하는 동기를 방문하여 근황을 듣는 모임이다. 78학번 경영 동기 대부분은 졸업 후 대기업, 금융기관, 회계법인에 근무한 관계로 창업리더는 거의 없다. 이공계 출신에 비해 기업을 운영하는 동기가 많지 않아 소위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는 점이 부끄러울 때도 많았고,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동기를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여러 궁리 끝에 월 1회, CEO동기를 방문하여 해당 회사의 현황과 성공사례를 동기들에게 전해주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다. 사진의 오른쪽 아래는 1타로 만난 ㈜켄비텍 김일용 대표다. (㈜켄비텍-가스 및 먼지 측정기 제조업체) 사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유병안, 윤장섭, 황순하 동기이다.



78경영 당구모임 (당구회장 : 박원현) ●●●

지난 3월 27일 78경영 당구 정기모임을 가졌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당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핵심 멤버들로 청춘의 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만능 재주꾼 김동원, 최근 자녀를 혼사시킨 주일성, 현역 주식상담사 홍준표와 당구에 미친 박원현이면 모임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식전 게임을 마치고 반주를 걸들인 저녁식사는 부산시장에 출마한 동기에게로 시작하여 현 시국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진 후 2차 게임을 하며 청춘을 되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4월의 모임에는 모임에 나올 법도 한 한덕철, 이윤찬, 김 열 동기같이 더 많은 동기들이 모일 것을 기대하며 모임을 마쳤다.



입학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진행 ●●●

경영80 동기회는 올해가 입학 4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한 해를 맞이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제대로 된 행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그 와중에도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가졌다.

-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여 실내 문화행사 진행이 허용된 짧은 시기를 이용하여 2020년 8월 6일(목) 오후 8시 블루스퀘어 인터파크 홀에서 열린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총 57명의 동기 및 배우자와 함께 단체 감상을 하고 주변 식당에 모두 모여 뒤풀이를 하면서 동기들 간의 우의와 건강을 기원하는 뜻 깊은 기회를 가졌다.
- 가을에 가지고자 했던 각종 기념모임은 모두 무산되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40주년을 자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짧은 기간에 가졌던 기적같이 소중한 행사였다.



호산회 ●●●

호산회는 코로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하여 정기 산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행부와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4인 산행조를 편성하여 비공식 산행을 지속하면서 코로나가 극복될 날을 대비하고 있다.

경영84 바이오포럼 모임을 시작하다 ●●●

12월 어느 날,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전상표 대외협력실장, NH선물 박기호 부사장, 바이오 벤처 회사 케일헬스케어 강문호 대표, 바이오 회사의 사외이사인 이순규 동기가 모였다. 고대구로병원 현황과 급변하는 바이오 업계의 동향을 소개받고 참석자들은 경영84 바이오포럼을 만들었다. 바이오 베스트 애널리스트였고, 지금은 휴온스 메디컬의 COO인 임진균 동기, 벤처캐피탈의 Co-Founder겸 투자역인 이종우 동기, JP헬스케어 대표 김진국 동기도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국으로 오프라인 모임은 제약이 있지만 멤버들은 소모임과 사이버공간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





학번별 소식

86 회장 유재열 / 총무 강봉주

86동기회 온라인 총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020년 연말총회를 열지 못하고 해를 넘겨 2021년 1월 24일 86경영 밴드에서 온라인 투표로 회장단 선거가 진행됐는데 유재열 동기가 86학번 4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총무는 강봉주 동기가 맡기로 했다. 3대 회장인 정경모 동기는 86학번 전체 동기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회장 유재열



총무 강봉주



연대별 소식

경영 809 회장 여용동 (경영82) / 총무 권태우 (무역85)

809 창립 10주년 행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KUBS809(회장 : 여용동)은 지난 11월 7일에 초대 회장인 80학번 이선용 교수가 운영하는 세종시 소재 베어트리파크에서 창립 10주년 행사를 가졌다. 대규모 행사를 갖기엔 시기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어서 진행 여부를 놓고 많이 고심하였지만, 고대 경영대의 가장 중요한 모임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809의 10번째 생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엄격한 관리 수칙과 관리 가능한 참석 인원을 30여명으로 정해 놓고 희망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해진 규모로 진행해보기로 결정하였다.

이 행사를 위해서 809의 4기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행사 컨셉을 "809창립 10주년- 그 주인공은 바로 809회원 당신입니다"로 정하고 행사 관련 제작물 제작과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기로 하였고 참석을 하지 못하는 80여명의 회원들을 위해 사전 공유의 과정을 충분히 가지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까지도 자축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갔다.

한 달 여의 준비 중에 초대 회장인 이선용 교수가 흔쾌히 행사 장소와 베어트리파크 투어, 식사, 공연 등 현장 진행을 맡아 주기로 하였고 10주년 행사에 대한 공지, 참가자 모집 그리고 드레스코드 등 전반적인 진행 프로그램도 809밴드와 809회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면서 착착 진행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10주년 행사를 축하해주는 많은 협찬금 및 물품이 답지 하였고, 주말 세종시 베어트리파크까지 편안한 이동을 위한 고급 전세버스 협찬까지도 이루어졌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회원들의



809에 대한 애정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협찬금과 당일 행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금은 모교관련 후배들과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로 해서, 809모임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도 돌러보는 모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 아침 9시부터 선발대는 미리 세종시로 가서 행사의 사전 준비를 하였고 참석자들은 1시에 버스편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베어트리파크에 도착한 회원들은 이선용 교우의 가이드로 수목원과 공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냥 지나치면 모를 나무와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생활하는 주변에 함께 하는 존재들의 이름과 그 오래된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던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수백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나무들의 역사를 상상하면서 삶의 의미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베어트리파크에 도착하고 모여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꾸민 반달곰과 불곰들에게 먹이를 주고 사랑스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저 동물을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즐거움 이외에도, 동물과의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음과 방법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야외에서의 투어를 마친 후, 정성스럽게 준비된 만찬을 즐기고 1층 강당에서 809 10주년을 맞아 2010년 6월 17일 창립일부터 10여 년간의 활동상황과 추억을 PPT 자료로 공유하면서 함께 회상하며 웃고, 가끔은 몽클하기도 하면서 함께 10년을 쌓아온 고대 경영대 선후배들과의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삼오오 모여서 같은 크림슨 색깔의 자켓을 입고 10주년 기념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모습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정다운 모습이었다.

이어서 809 창립부터 초기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80학번 이선용, 김상연 교우에게는 특별히 제작한 황금 뱃지를 달아드리고, 각 분야에서 기여한 선후배들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809의 10년을 격려하고 다시 10년을 이어가자는 다짐을 하였다. 그 이후 세종시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색소폰 및 트럼펫 연주자들의 축하 공연과 86학번 동기회에서 외빈으로 참석한 교우 응원단의 리딩으로 흥겨운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특별 귀빈으로 참석하신 배종석 경영대학장님의 축하말씀과 여용동 809회장의 마무리 인사말씀으로 809 10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되었다.

809 10주년 행사는 당일 행사로만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사태로 제한된 참석인원이라는 여건과 그간 연락이 뜸했던 회원들에게도 1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시 새로운 10년을 위해 차분하고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KUBS Ladies 회장 이충진 (경영81)

그동안 KUBS Ladies 소식들 ...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2020년, KUBS Ladies의 많은 정규, 수시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갑작스러운 방역수칙 격상으로 인해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 때문에 KUBS Ladies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8주년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이 기쁨을 학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말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많은 학우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또한, 매해 진행되는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마무리라 할 수 있는 클로징 행사의 경우도 온라인을 통해 기념품과 유인물을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해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위의 두 행사를 제외하고도 KUBS Ladies 집행부원 모두는 온라인으로 보다 알차고 순조롭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온라인 Good Evening 중간 행사-토크콘서트', '2020-2 드림콘서트'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옐로우드 감사로 활동 중이신 금현애 교우님(경영04), 모레상점의 대표로 활동 중이신 이지은 교우님(경영01) 그리고 신한카드 마케팅 팀에서 활동 중이신 우나연 교우님(경영13)을 비롯한 많은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람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교우님들의 지지에 힘입어, 집행부 차원에서 온라인과 비대면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새내기들에게 유익한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호랑이 등판', 교우님들의 커리어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엿볼 수 있는 '쿵스 워먼'과 같은 SNS 콘텐츠를 신설해 KUBS Ladies 공식 인스타그램(@kubs_ladies)에 게시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여 KUBS Ladies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었다.

2020학년도 겨울방학, KUBS Ladies 재학생 집행부 Blossom은 여교우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1년의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활성화하기 시작한 개강 이벤트 또한, 매 학기마다 새로운 주제와 상품으로 구성되어 진행 중이며 특히 이번 2021-1학기 개강 이벤트는 신입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올 2월에 진행된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티 모집과 3월에 진행된 Blossom 16기 신입부원 모집에서 평소보다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그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 느낄 수 있어 더욱이 감사했다. 현재는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오프닝 행사와 매 학기 진행되는 연사 초청 강연 행사인 Dream Concert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집행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KUBS Ladies를 향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 - 922 - 3762
· FAX	02 - 922 - 3763
· E-MAIL	kubsa@kubsa.or.kr

교우신간



서명 | 인문학산책
저자 | 김동기 (경영70)
출판사 | 해드림출판사
출판일 | 2020년 12월 31일

인문학에 관해 새롭게 정의하고
각 분야별로 문학, 역사학, 철학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론형태의 해설을 덧붙이고,
그것을 다시 각론 형태로
한국문학과 해외문학, 한국사와 세계사 그리고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각각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상을 수상한 작품 등
국내외의 유명서적 120권을 엄선하여
저자와 작품 배경, 책의 내용,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축약
정리하였다.



서명 | 베트남,
인도와 협상하기
저자 | 김형준 (경영73),
안세영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21년 1월 5일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는 두드러지게 지역, 종족, 언어, 종교,
신분차이 등 매우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민족
이며 단일언어를 쓰는 우리와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협상 상대방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
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 같은 베트남과 인도 기업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문화협상(cross cultural negotiation)에 대한
 이해(두 나라의 역사, 관습, 문화, 독특한 협상술)를 먼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SK그룹 임원 재직 시 인도를 위시한 여러나라와
에너지 트레이딩 및 투자협상 경험을 쌓고 대학과 기업에서
국제협상전략을 강의한 김형준 교수(경영73)와 베트남 부분
은 안세영 서강대 교수가 여러 실무경험, 강의 경험을 토대
로 작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베트남과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협상문화의
특성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편집하였으며
구체적 협상사례를 분석하여 이들 나라에 적합한
한국적 다문화 협상전략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교우동정



허창수 (경영67/명예회장)

2021년 2월 26일 허창수 경영대 교우회 명예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제38대 회장 5연임이 확정되었다.



이충희 (경영77)

2021년 3월 23일 이충희 교우가 농구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영진 (경영79)

2020년 12월 17일 임영진 교우가 신한카드 사장 4연임에 성공하였다.



정몽규 (경영80)

2021년 1월 7일 정몽규 교우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되었다.



박수근 (경영81)

2021년 1월 7일 박수근 교우가 고대경제인회 정기총회에서 전문경영인 부문에 고대경제인대상을 수상하였다.



정성권 (경영81)

2021년 3월 31일 정성권 교우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조경식 (경영82)

2021년 3월 26일 조경식 교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임명되었다.



송경석 (경영83)

2021년 3월 25일 송경석 교우가 TBC 사장에 선임되었다.



구자열 (경영72/고려대학교 교우회장)

2021년 2월 24일 구자열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이 한국무역협회 제31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권길주 (경영79)

2021년 4월 12일 권길주 교우가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장치평 (경영79)

2021년 1월 25일 장치평 교우가 서초교우회 신입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강신호 (경영81)

2020년 12월 14일 강신호 교우가 CJ대한통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유정준 (경영81)

2020년 12월 3일 유정준 교우가 SK E&S 부회장으로 승진하였다.



박정호 (경영82)

2020년 12월 3일 박정호 교우가 SK하이닉스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권오현 (경영83)

2021년 3월 19일 권오현 교우가 삼성선물 감사로 선임되었다.



이인무 (경영84)

2021년 3월 1일 이인무 교우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장 겸 테크노경영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주태현 (경영85)**

2021년 3월 15일
주태현 교수가 산업은행 감사로
임명되었다.

**김완섭 (경영87)**

2021년 4월 8일
김완섭 교수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에 임명되었다.

**정익선 (경영89)**

2021년 1월 8일 정익선 교수가
대한양궁협회 제13대 회장으로 5선
연임이 확정되었다.

**조영한 (경영90)**

2021년 12월 21일
조영한 교수가 HDC아파트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남상우 (경영92)**

2021년 3월 24일
남상우 교수가 하나금융파트너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홍원기 (경영92)**

2021년 1월 25일
홍원기 교수가 키움 히어로즈
감독으로 취임하였다.

**김성필 (경영96)**

2020년 11월 1일
김성필 교수가 한국MSD 항암제사업부
총괄 부사장에 선임되었다.

**임장균 (경영97)**

2020년 12월 13일
임장균 교수가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매니징디렉터파트너에 선임되었다.

■ 교수동정**김동기 (상54/명예교수)**

▶◀부고 2020년 12월 15일 모교 경영대학 김동기 명예교수가 별세하였다. 향년87세. 1965년 모교에
부임해 1999년에 정년퇴임 하였다. 모교 경영대학원장, 한국경영학회장, 한국마케팅학회장,
한국상품학회장, 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부터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을 맡아왔다.

**김익수 (경영73)**

2021년 2월 28일 모교
김익수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되었다.

**배종석 (경영82)**

2020년 11월 1일
배종석 교수가
경영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전재욱 (경영92)**

2020년 11월 1일
전재욱 교수가
경영대학 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 임원위촉**부회장**

64학번 강동식

상임이사

00학번 천영석

이사

86학번 황택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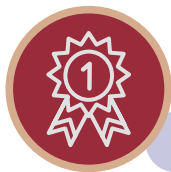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영학 역사를 선도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The First

- 국내 경영학의 효시인 이재학과 개설 (1905)
- 국내 최초 경영학과 설립 (1955)
- 국내 최초 경영대학원 설립 (1963)
- 국내 최초 경영대학 학위 전 과정 AACSB(유럽경영교육인증) 획득 (2005)
- 국내 최초 EQUIS(유럽 경영교육인증) 3회 연속 5년 인증 획득 (2021)
- 국내 유일 CEMS Global Alliance(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 정회원 자격 획득 (2015)



The Best

- 전국 경영대학 평가 국내 1위
- 단일 대학 단일 학과 기준 대한민국 100대 CEO 국내 최다 배출
- 2020년 공인회계사(CPA)시험에서 5년 연속 최다 합격자 배출
- 경영학과 평가 최상 등급 달성(중앙일보)
- 2020 QS 세계대학평가 경영·관리 분야 국내 사립대 1위
- 2020 QS 세계대학평가 회계·재무 분야 국내 사립대 1위
- 2020 UTD 세계 경영대학 연구성과 국내 1위



배종석

경영대학(원)장님

Interview

경력사항

- 2020.11 ~ 모교 25대 경영대학(원)장
- 2010. 4 ~ 한국인사조직학회 상임이사
한국인사조직학회 편집위원
- 2010.11 ~ 모교 경영대학 부학장
2009. 8
- 2008. 3 ~ 모교 경영대학 교수
- 2007. 2 ~ 미국 스탠퍼드대
2006. 7 경영대학원 방문교수

학력사항

- ~ 1997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인적자원관리 박사
- ~ 1994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인사, 노사 석사
- ~ 1988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관리 석사
- ~ 1986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 2020년 11월 1일 경영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올해 116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KUBS) 학장이 된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강의하던 머리가 비워지고 온통 학교에 관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경영대학을 사랑하고 학교가 발전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길지 않은 임기이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일궈온 경영대학의 발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보려고 합니다.

2. 앞으로 2년 동안 어떠한 비전과 목표로 경영대학을 이끌어갈 예정이십니까?

경영대학의 미션은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입니다. 즉, 우리의 미션은 '인격을 갖춘 탁월한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는 데 있습니다. 경영을 통해 소극적으로는 인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양식을 바꾸어 인류의 번영(Human Flourishing)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경영은 사회 안에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와 함께 존재합니다.

경영대학의 비전은 '경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식 허브(World-class Knowledge Hub in Business)'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인 힘이 사람과 조직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장으로서 정말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물어보신다면 KUBS의 비전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령 가칭 'Asia Pacific Business Center'를 만들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아시아와 세계를 대표하는 Knowledge Hub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2030년까지 글로벌 30위, 아시아

1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되고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더욱 잘 실행하여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좋은 삶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경영대학의 미션, 비전 및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25대 운영팀은 5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그리고 30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경영대학 발전의 토대가 되어왔던 기존의 체제를 다시 혁신시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역량 제고 △교육 혁신 △재정/행정력 강화 △역사성 구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를 넘어 2030 목표를 위해 향후 계속 수행해야 할 과제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세계 어느 대학에나 갈 수 있는 세계적인 석학 열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미래 인류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인재상, 교육목표, 핵심역량과 수요자의 필요에 맞춰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싶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확보와 행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6년의 역사에 걸맞은 역사성을 구축하기 위해 역사관 재구성, 학술사적 관점에서의 고대경영 120년사 저술, 예술품(그림, 조형물) 확보, 원로 교수님 동영상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 학생들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3월 한 달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에는 MBA 과정부터 점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모두가 처음 겪는 위기였기 때문에 학교 행정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이고 토론을 활성화하며 대면 수업 못지않은 수준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의견들을 교수님들과 공유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양면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수용도 자체는 탁월합니다. 많은 학부 학생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편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면 강의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친밀감, 깊이 있는 토론의 기회, 소속감의 증대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교육기술의 발달이 향후 대학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의 구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학이 위치한 도시를 벗어난 지역 혹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특출한 명강사가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대학교육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4. 경영철학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전공하셨는데, 학장님의 Know-How를 경영대학 운영에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이십니까?

저의 전공을 교육과정과 행정과정에서 적용해보려고 합

니다. 학부에서 [경영의 철학적 이해]와 [인적자원관리]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경영철학 과목에서는 존재론, 인식론 및 가치론으로 기업, 경영 및 사람 각각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란 무엇인가?’ 경영의 실체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교육기술과 수요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영학 교육과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도전이 매우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MBA 교육의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과 경영의 본래적 의미를 드러내고 경영학 교육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은 ‘인류가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도록 돕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류가 어떤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발견하는 가운데 창의성과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인류의 삶을 이해하는 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격을 갖춘 탁월한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 기능적, 계량적 지식과 기술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위 인문 교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은 미국 최초의 근대적 경영학 교육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1881년에 설립된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와튼스쿨(Wharton School)이 출발할 때 가졌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적자원관리를 강의하고 연구해온 점도 여러 각도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교수 초빙을 할 때, 직원 관리를 할 때 선발기준, 평가제도, 보상 관련 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과 연계해 무엇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좋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즉, ‘고대다움’, ‘고경다움’의 특징을 드러내고 공유하여 우리만이 가진 독특성을 찾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5. 배종석 학장님께 고려대학교란 어떤 의미 입니까?

우선 고려대학교는 제 삶의 존재(Being) 의미와 고스란히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박사과정도 잠깐 다니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재학과 재직기간을 합치면 약 27년을 고려대학교에 몸담아 온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의미가 고려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겠지요. 이 공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배우고 가르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저의 존재와 저의 소명이 고려대학교와 분리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성 속에서 제 역할(Doing)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한국에서 최초로 상업학을 가르친 대학이고 116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기 때문에, 그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아 미래에 지속될 후학들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연구와 교육, 그리고 행정 보직이라는 임무를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의미 있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연결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과거 선배님들이 이곳에 현존하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또한 미래의 후학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을 저의 의사결정 속에 고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의 작은 역할이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존재와 행위가 고려대학교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6. 경영대 교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의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시는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의 발전에 늘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학교 발전에 기뻐해 주셨고 마음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경영대학도 교수님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그리고 교수님들의 활동에 지속적인 버팀목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우다움을 잘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대학의 발자취는 언제나 선도적이고 개척자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경영대학을 거쳐 간 교수님들께서 계신 그곳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인류가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도록 돕는 진취적인 창조자가 되어 주신다면 경영대학은 큰 힘을 받을 것입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의 교우회라는 명품 클럽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원금과 같은 물질적인 대가만이 아니라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 이념에 동참하는 정신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억눌리고 지배당하는 곳에 자유의 정신을, 억울하고 불공정한 곳에 정의의 정신을, 거짓과 불신이 가득한 곳에 진리의 정신이 발휘되어 여러분들로 인해 한국의 기업과 경제와 사회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영대학이 '이 정도면 됐다'는 만족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잘나가는 경영대학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시아권에서만 봐도 중국의 북경대나 칭화대, 홍콩과기대나 싱가포르국립대 등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세 개의 건물을 가진 것은 우리의 큰 자산이지만, 이제는 내용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2030 비전의 달성을 통해 우리 교수님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실 경영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영대학, 3회 연속 'EQUIS' 5년 인증 쾌거

국내 '최초' EQUIS 인증 받은 데 이어
3회 연속 5년 인증 획득
경영교육인증 통해 세계적인 교육 수준 입증해



경영대학이 유럽경영대학협회(European Founda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EFMD)가 수여하는 EQUIS(EFMD Quality Improvement System) 경영교육인증의 3회 연속 5년 인증에 성공했다.

EFMD는 대학이 추구하는 △비전 △전략 △교육환경 △커리큘럼의 질 △교수진 △교육 시설 △국제화 수준 △학생자질 등 10개 항목을 엄격하게 평가해 EQUIS 인증을 부여한다.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EQUIS 인증은 영국 케임브리지대(University of Cambridge), 중국 베이징대(Peking University),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등 전 세계 191개교만이 보유하고 있다.

본래 심사는 EFMD에서 파견한 심사단이 2020년 5월에 본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이후 2020년 12월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온라인 심사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수 △직원 △과정별 재학생 △졸업생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가 실시됐다.

3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심사단은 실제 사례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고려대 경영대학의 연구 역량과 교육 환경에 우수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 과정과 ‘Center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Business’를 신설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고려대 경영대학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고려대 경영대학은 2007년 국내 최초로 EQUIS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3회에 걸친 재인증 심사에서 모두 5년 인증에 성공하며 ‘Special Re-accreditation’ 지위를 얻게 됐다. 이 특전을 통해 5년 후에는 간단한 심사 절차를 통해 5년 인증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배종석 경영대학(원)장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EQUIS 인증에 국내 최초로 3회 연속 5년 인증에 성공함으로써 고려대 경영대학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경영대학임을 입증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인격을 갖춘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고려대 경영대학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경영대학은 국내 최초로 경영대학 학위 전 과정에 걸쳐 세계경영대학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가 수여하는 경영교육인증(Business Accreditation)을 획득했으며, 세계 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인 CEMS Global Alliance의 국내 유일 정회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내 최초(The First) & 국내 최고(The Best)’ 경영대학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실시

2020 전국 경영대 평가 '13년 연속' 1위



2020 전국 경영대 평가 역대 상위 10개 대학 종합 순위

종합순위	대학	2019순위	변동
1	고려대	1	
2	서울대	3	▲1
3	연세대	2	▼1
4	성균관대	4	
5	한양대	5	
6	서강대	5	
7	경희대	7	
8	중앙대	8	
9	한국외대	10	▲1
10	이화여대	9	▼1

출처 : 한경비즈니스



리서치 전문 회사인 글로벌리서치가 국내 3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0 전국 경영대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고려대 경영대가 해당 평가가 시작된 2008년부터 13년 연속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자리를 지켜냈다.

설문 항목은 인재 육성보다 졸업 후 기업에서 얼마나 활약하는지 기업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전공 및 교양 교육의 업무 적합성 △업무 적응력 △조직 융화력 △발전 가능성 △창의적 업무 해결 △국제화 시스템 △성실성과 책임감 △신입 사원 채용 선호도 △진학 추천 등 총 9개 항목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동등한 평가 비중을 두기

위해 각 부문별 순위를 합산하여 종합해 최종 순위를 매긴다. 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전공 및 교양 교육의 업무 적합성을 중요시하며 대학 교육에서 전공과 교양 교육의 훈련이 충분히 이뤄져 기업 업무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고대 경영대는 9개 부문 중 △업무적응력 △조직 융화력 △발전 가능성 △성실감과 책임감에서 선두를 거머쥐었으며, △전공 및 교양 교육의 업무 적합성 △창의적 업무 해결 △신입사원 채용 선호도 △진학추천은 2위, △국제화 시스템 부문은 3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

2020학년도 2학기 경영대학 장학금 수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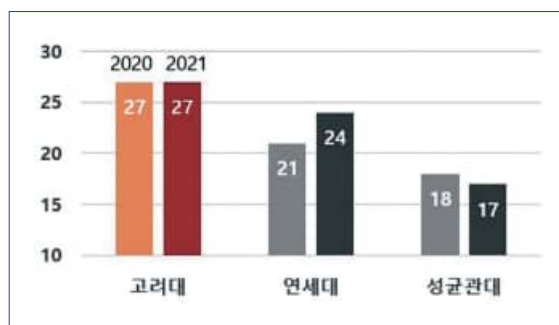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단과대 자체 장학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장학기금은 기부자의 깊은 뜻을 받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우수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2020학년도 2학기에는 경영대학 재학생 179명이 45개 장학금을 수혜했는데, △KUBS Dream Scholarship(66명) △미래 장학금(69명) △소암 장학금(12명) △남촌 장학금(10명) △엠엔제이문화복지재단 장학금(4명) △KPMG삼정회계법인 고대교우회 장학금(2명) △AMP 89기 장학금(4명) △고대MBA 장학금(5명) △양영재단 장학금(7명) 등이다.

장학생 대표 한정원(경영19) 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배움과 경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기부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되며, 제가 받았던 것들을 다시 베풀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한다.”며 “기부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저 또한 자랑스러운 고경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부자님들처럼 후배들과 사회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 장학생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렸던 이 날을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매 학기 장학금 수여자와 장학생이 만나 교류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부득이 취소되었고, 이에 장학생들은 수여자에게 감사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QS 세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 27개 분야 '톱 100위', 국내 사립대 1위



주요 종합사립대 100위권 내 전공수 비교표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가 3월 4일 발표한 '2021 세

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에서 고려대학교가 4년 연속 국
내 종합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공 분야를 '톱 100위'
에 진입시키며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QS는 전 세계 1,452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문&예술, 사
회과학&경영, 공학&기술, 생명과학&의학, 자연과학 총
5개 학문 분야, 51개 전공별로 500위까지 대학 순위를
매겼다.

고려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7개의 전공이 '톱 100위'
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사립대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또한 다른 대학들과 달리 인문계열 14개 분야, 자연계열
13개 분야 등 분야별 균등한 순위를 보였다. 이는 본교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한 결
과다. 특히 100위 권 내 본교의 자연계열 전공 분야 수는
13개로 KAIST 11개, POSTEC 5개보다 높은 수치다.

학문 분야별로는 '사회과학&경영(Social Sciences
& Management)', '공학&기술(Engineering &
Technology)', '자연과학(Natural Sciences)'분야가 각각

46위, 63위, 82위로 5년 연속으로 국내 종합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인문&예술(Arts & Humanities)'은 77위에 자리
하며 2년 연속 국내 사립대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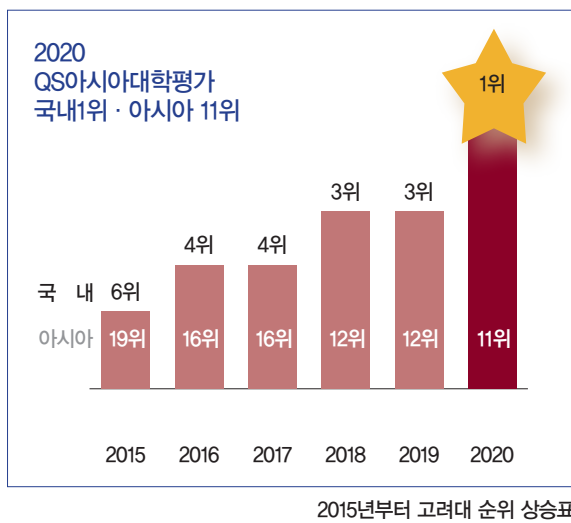
전공 분야별로는 4개의 전공 분야가 '톱 50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정책&행정학(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이 전년보다 6계단 오른 38위를 차지했고, '어문분야
(Modern Language)', '경영학(Business & Management
Studies)', '재료과학(Materials Science)'이 모두 48위를
기록하며 국제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재료과학
(Materials Science)'은 처음으로 '톱 50위'에 들었다.

또한 '해부학&생리학(Anatomy&Physiology)'분야가 3년
연속 100위권에 안착하며 국내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했
다. '고고학(Archaeology)'분야는 작년 처음으로 50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100위권에 들며 좋은 성적을 거
두었다. '간호학(Nursing)'은 올해 처음으로 150위권에 진
입했다.

고려대는 QS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7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69위를 차지했다. 이는 6년 연속
국내 종합사립대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작년 11월 발표한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국내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
을 거둔 바 있다.

2020 QS아시아대학평가 국내 1위 차지

국제연구협력 지표
3년 연속 국내 1위,
고용주 및 연구 평판도
지표가 순위 견인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가 최근 발표한 '2020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가 전체 순위 11위, 국내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가 국내 1위의 성적을 거둔 것은 2009년 QS 아
시아대학평가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평가에
서 4년 연속 종합사립대학 1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국
내대학 전체 순위는 국립대인 카이스트와 서울대 다음
인 3위였다.

전체 순위는 전년보다 1계단 오른 11위로 국내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더욱 돋보이는 결과다.

국제연구협력 지표에서 해당 지표가 생긴 이래 3년 연속 국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고용주 평판도 및 연구 평판도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QS아시아대학 순위는 아시아 대학만을 대상으로 QS가 200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국제연구 협력 지표가 추가되면서 11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QS아시아대학의 지표별 반영비율은 학계 평판도 30%, 졸업생 평판도 20%, 교수 1인당 학생비율 10%, 국제 연구협력 10%, 논문당 피인용수 10%, 교원당 논문수 5%, 박사학위 소지 교원비율 5%, 외국인 교수 비율 2.5%, 외국인학생 비율 2.5%, 국내로 들어온 교환학생 비율 2.5%,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 2.5%다. QS세계대학 순위가 6가지 지표를 평가하는 것에 비해 더 세분화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 우수 지표 ● : 고용주 평판도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고용주 평판도는 지난 해와 같은 12위를 차지했다. 고려대는 전통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판도를 유지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는 교과 외에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을 강화하여 단편적인 지식이나 일방적인 신념을 가진 인재가 아닌 통합적이고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설립 10년째를 맞는 고려대 사회봉사단은 6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아랄해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봉사활동 등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1:1 멘토링 프로그램 ‘미래나눔학교’, 원격화상교육 ‘마이크책’, 청소년 학습동기부여 멘토링 ‘환상의 짝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취약 계층 등 학습관리 사각지대를 비추는 사회 공헌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1,000개가 넘는 협정기관을 보유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기구 등에서의 해외인턴, 체계적인 창업지원, 100개가 넘는 동아리에서의 활동 등은 인재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공유가치, 리더십, 책임감, 타인과의 원만한 소통 및 협업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교과-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 ‘KUchive(이하 쿠카이브)’을 새로 오픈하여 AI 기반으로 학생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자동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인프라 지원을 확대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감소통 역량 ▲사회적 책임 역량 ▲융합적 사고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글로벌 역량 ▲도전적 리더 역량 등 총 6대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보완하도록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자기계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도록 하여 학생의 미래와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고려대는 학생들의 사회 진출 과정에서 커리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각자의 경험과 역량이 구직 경쟁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 희망하는 산업과 직무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희망하는 업무의 본질과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직무아카데미도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구직자별로 겪는 커리어 개발의 호소문제에 대한 맞춤형 카운슬링으로 1:1 커리어전문상담도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실전 면접을 가정한 인사담당자의 면접 지도 및 피드백 등이 담긴 모의면접클리닉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첨삭 클리닉 등 약 30여 개의 정례/상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위와 같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졸업생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고용주의 고려대생에 대한 신뢰를 높인 점으로 꼽을 수 있다.

● 우수 지표 ●

: 연구자 평판도 및 국제연구협력

“연구자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통한 사회 공헌에 중점”

고려대는 연구자 평판도 지표에서 1계단 상승하고, 국제 연구 협력 지표는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받으며 두 지표에서 모두 17위를 차지했다.

고려대는 지식 창출과 더불어 연구자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통한 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논문의 양적인 면 외에 질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지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논문의 피인용, 학문분야를 고려한 영향력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를 위한 원문 교정 지원 사업과 학제간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한 융합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미래창의지원사업(KU-FRG)을 마련하여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제연구협력에 대한 지원, 신진 교원에 대한 정착 연구비, 대형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 기초학문 및 회소학문에 대한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석탑연구상, 석탑기술상을 통하여 매년 뛰어난 연구성과

를 낸 교원을 격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인성스타연구자상을 신설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내 연구자에게 고액의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으로 우수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정보분석센터에서는 다양한 학술데이터(Scopus, Web of Science, 한국인용색인 등)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학과별,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성과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HCR(Highly Cited Researchers : 세계 상위 1% 연구자) 및 잠재적 HCR을 탐색을 통한 연구자의 연구 우수성 분석 등 학과와 대학 본부가 우수 연구자 확보 및 연구진흥정책 결정에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을 위한 KU-SDGs 방향성 탐색과 같은 최신 연구동향분석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연구기관 분석, 효율적인 연구협력을 위한 연구자 매칭 등 국제 연구협력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력 분석을 하고, 다양성 지표를 활용한 국제연구협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본교 및 연구자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성과 홍보 솔루션(Pure), KU Research, Research Profile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연구성과를 확산·홍보하여 연구성과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확대하여 동료 연구자의 관심을 확대시켜 피인용수를 증가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는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대학원 운영과 기업과 상생이 가능한 신수종 산업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UN이 정한 인류공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에 가치를 두며

고려대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0 QS 아시아 대학 평가 상위 주요대학 순위		
TOP20		
순위	대학 (작년순위)	국가
1	싱가포르국립대 (1)	싱가포르
2	칭화대 (4)	중국
3	난양공대 (2)	싱가포르
4	홍콩대 (3)	홍콩
5	저장대 (6)	중국
6	푸단대 (7)	중국
7	베이징대 (5)	중국
8	홍콩과기대 (8)	홍콩
9	말라야대 (13)	말레이시아
10	상하이자오통대 (17)	중국
11	고려대 (12)	한국
12	카이스트 (9)	한국
13	홍콩중문대 (10)	홍콩
14	서울대 (11)	한국
15	도쿄대 (13)	일본
16	성균관대 (16)	한국
17	교토대 (15)	일본
18	홍콩시립대 (19)	홍콩
19	타이완국립대 (20)	대만
20	도쿄공대 (17)	일본

장길수 고려대 기획예산처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고려대학교가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가면서 전반적인 평판도가 향상된 결실”이라고 이번 평가결과를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 연구역량과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앞서 6월 발표된 2020 QS세계대학평가에서는 작년보다 14계단 수직 상승한 세계 69위를 차지하며 7년째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다. 6년 연속 국내종합사립대 1위의 자리를 지켰으며 2016년 최초로 100위권에 진입한 이후 5년 만에 60위권에 진입할 만큼 고려대의 상승세는 매우 가파르다.

www.korea.ac.kr

‘과학고대’ 비전 실현하는 학문의 터전 과학도서관, 새롭게 태어나다

2019년부터 이어온 Redesigning 사업,
최근 3층 오픈식 열려
올 상반기 4층까지 리모델링 완료 예정

1951년, 농학과 신설과 함께 출발한 고려대 자연계 분야 연구와 교육은 1983년, 과학도서관의 개관을 통해 한단계 도약하면서 '과학고대'의 중흥을 이끌며 현재의 고려대 연구와 교육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자연계 캠퍼스의 학술적 중심이자 연구와 교육을 위한 소중한 터전인 과학도서관이 서비스 중심의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해 2021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과학도서관 공간 Redesigning 사업은 자연계 캠퍼스의 환경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다.

최근 2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과학도서관 1층과 2층이 리모델링됐고, 이번에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과학도서관 3층이 리모델링 됐다. 과학도서관 3층 공간은 특히 대학원생을 위한 공간으로 꾸려졌다. 개방형 단기 연구프로젝트 공간인 프로젝트 플레이, 장기 연구 프로젝트 공간인 리싱크스페이스, 1인 집중연구학습공간인 캐럴, 그리고 자연계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레거시 라운지 등으로 조성되어 '과학고대'의 발자취와 자연계 캠퍼스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 전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한편, 4월 6일(화) 오후 2시에는 과학도서관 3층 오픈식이 열렸다. 정진택 총장은 "상반기에 4층 공간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과학도서관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3층 공간의 리모델링을 계기로 과학도서관이 자연계 캠퍼스의 사람 중심의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과학고대’비전을 실현하는 심장, 과학도서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www.korea.ac.kr

경영 55학번 동기명부 제작 소감

이득주 | 경영55



2020년 1월 어느 날 경영대55학번 동�회(신년회) 모임이 종로구 계동에 있는 모 음식점에서 있었다. 참석인원은 약 30명 이상이 었다. 식사를 마치고 전임 회장의 인사와 신입회장 선출이 있었다. 회장할만한 사람을 누군가가 추천하였으나 후보 본인이 건강상 의 이유로 극구 사양해서, 얼떨결에 시골에 사는 본인이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건강조건이 가장 중요시되는 노령이어서 비교적 건강한 본인이 동기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인 듯하였다. 책임을 맡고 보니 총 무는 서울에 거주하고 본인은 시골에 있으니 모든 업무처리하기가 불편하였다. 마침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였으니 모든 기능 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따라서 자질구레한 일을 총무에게 시키는 미안한 마음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되었다. 코 로나 사태로 아무런 일(회의소집, 여행, 소통시스템 구축 등)을 하지 못하여 회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하나라도 해보자는 뜻에서 회원수첩을 재정비하기로 작심하게 되었다.

그간(20여년) 전화번호, 주소변동 등 상황이 바뀌고 소통이 되지 않아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차 몇몇 회원과 함께 명부를 정 비하려고 하였으나 합석한 회원의 난감한 표정으로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찾기 어렵고, 찾았어도 한문을 몰라 일을 진척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고위공무원 출신 후배의 도움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초안을 작성했다. 불완전한 초안이지만 인쇄해서 명부가 나왔다.

이 새로운 명부를 보니 사망자의 착오 및 누락 등이 많았다. 이 명부를 배포한 후 몇몇 회원들로부터 생존, 사망자 착오사항과 누락자 등 최근 상황을 통보를 받게 되어 장기간 행방불명자들 몇 명을 더 찾아낼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의 성과를 거둔 셈 이었다.

한편 자료를 정리하면서 많은 인원이 입학 시의 명부에는 등재되었으나 졸업 시 명부에는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김순식 교수님(대학원장)의 말씀이 생각난다. 시대상황이 한국전쟁(6.25사변 : 1950.6 ~ 1953.7) 휴전 직후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고 누구 나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인지라 학교를 중퇴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당시 김순식 교수님(대학원장)의 강의시간 초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의 동기 중 누군가는 학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마도 퇴학 혹은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면담 후 강의시간에 들어오신 것 같았다.

전후의 비참한 모습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감회가 들었다. 오랜만에 어렵사리 만들어진 명부가 연결고리가 되어 동�회 조직이 공고히 되고, 동기회원들이 서로 쉽게 소통하고 노 년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년기 건강관리

고 조익순 명예교수님께서 2016년 11월 24일 월례강좌회를 위해 한국인 마해송씨와 일본인 기꾸찌 관씨가 창설한 일본 문예춘추사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 문예춘추에서 발표한 노년기 건강관리 논문들과 일본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아래의 강의를 작성하셨으며 아래의 방법대로 건강관리 해오셨음을 밝힙니다.

게시요청 · 62학번 **김종진** 교우



글 · 고 조익순 경영대학 명예교수

1 습관은 유전자를 바꾼다.

- 지나친 술과 담배는 최악의 생활습관임.
- 식사하기 1시간 전, 기상 즉시 물을 500cc 마실 것.
- 육류 위주의 식사는 노화를 촉진한다고 함.
- 하루에 낮잠을 20~30분, 지나친 운동은 No.

2不老의 방정식

- 나이를 먹는 것은 면역력 저하
 - ㉠ 낙관적, 느긋함, 잘 웃음,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
 - ㉡ 유산소 운동, 복식호흡, 숙면
 - ㉢ 셀레늄 섭취
 - ㉣ 자주적인 행동 : 무흥미, 무관심, 무감정, 칩거 지양
 - ㉤ 많은 대화의 장, 친밀한 동반자 관계
 - ㉥ 가벼운 飢餓상태

– 白壽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격 :

- ㉠ 外向性
- ㉡ 誠實性
- ㉢ 開放性
- ㉣ Happy people live longer

– 短命者의 공통된 성격

- ㉠ 정제된 설탕을 좋아하는 성격
- ㉡ 살이 찐 사람 – BMI가 22를 많이 넘는 사람
- ㉢ BMI가 19보다 많이 낮은 여원 사람

3 면역력 높이기 : 손톱 뿌리 문지르기

– 자율신경의 교란 요인은 스트레스 시 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임파구 부족, 면역력 저하, 과립구 증가하여 병을 촉진한다. 손톱 뿌리 문지르기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 양자의 균형,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 1일 3회로 손톱마다 10초, 특히 각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깊은 손가락은 20초를 문질러준다.

- ㉠ 엄지 손가락 : 아토피, 기침, 천식, 류마티스, 원형탈모 등에 좋다.
- ㉡ 집게 손가락 : 궤양성 대장염, 위 · 십이지장 궤양 등에 좋다.
- ㉢ 가운데 손가락 : 귀 울림, 난청 등에 효과있다.
- ㉣ 새끼 손가락 : 뇌경색, 치매, 파킨슨병, 불면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요통, 신장병, 빈뇨, 간염, 비만, 안면신경통, 우울증 등에 도움이 된다.

4 健康長壽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방법

– 건강한 뇌 유지법 :

- ㉠ 사무엘 올만의 시
- ㉡ 뇌에 적절한 자극
- ㉢ 질이 높은 잠
- ㉣ 간단한 계산과 매일 소리내어 글을 5분 동안 읽기
- ㉤ 균형잡힌 식사
- ㉥ 녹차, 카레부의 섭취
- ㉦ 내장지방형 비만 회피,
- ㉧ 고혈압, 당뇨병 risk회피 (백설탕 줄이기, 소량의 올리브유, 참기름, 해바라기유, 오메가3, 유산소 운동 즐기기)

– 치매예방을 위한 방법 :

- ㉠ 정신적 스트레스 없는 운동
(숨이 조금 찰 정도의 步行 30분 이상)
- ㉡ 좋은 취미와 지적 호기심 : 여행과 요리, 음악과 미술
- ㉢ 음식을 잘 씹기
- ㉣ 시금치로 노안 예방
- ㉤ 10인, 열 곳 이상의 인명, 지명 외우기, 타우린 성분 마시기, 일본제 도리코네 커피 마시기, 겨울철 방어회 먹기

5 본격적인 발병 직전의 예방조치

- ㉠ 건강 할 때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
- ㉡ 저체온 회피(핫팩이용)
- ㉢ 가공육(햄, 소세지 등)과 붉은 색깔 고기 주의
- ㉣ 항산화 식품들을 즐겨 먹도록
(양상추, 브로콜리, 사과, 딸기, 양파, 메밀, 녹차, 레드와인, 프룬(말린 자두), 석류, 깨, 팔, 된장, 두유, 두부, 수세미, 검은 콩, 고구마, 체리, 호두, 땅콩, 블루베리, 가지, 복숭아, 생강, 카레 분, 계피, 마늘, 소량의 알코올 등)

건널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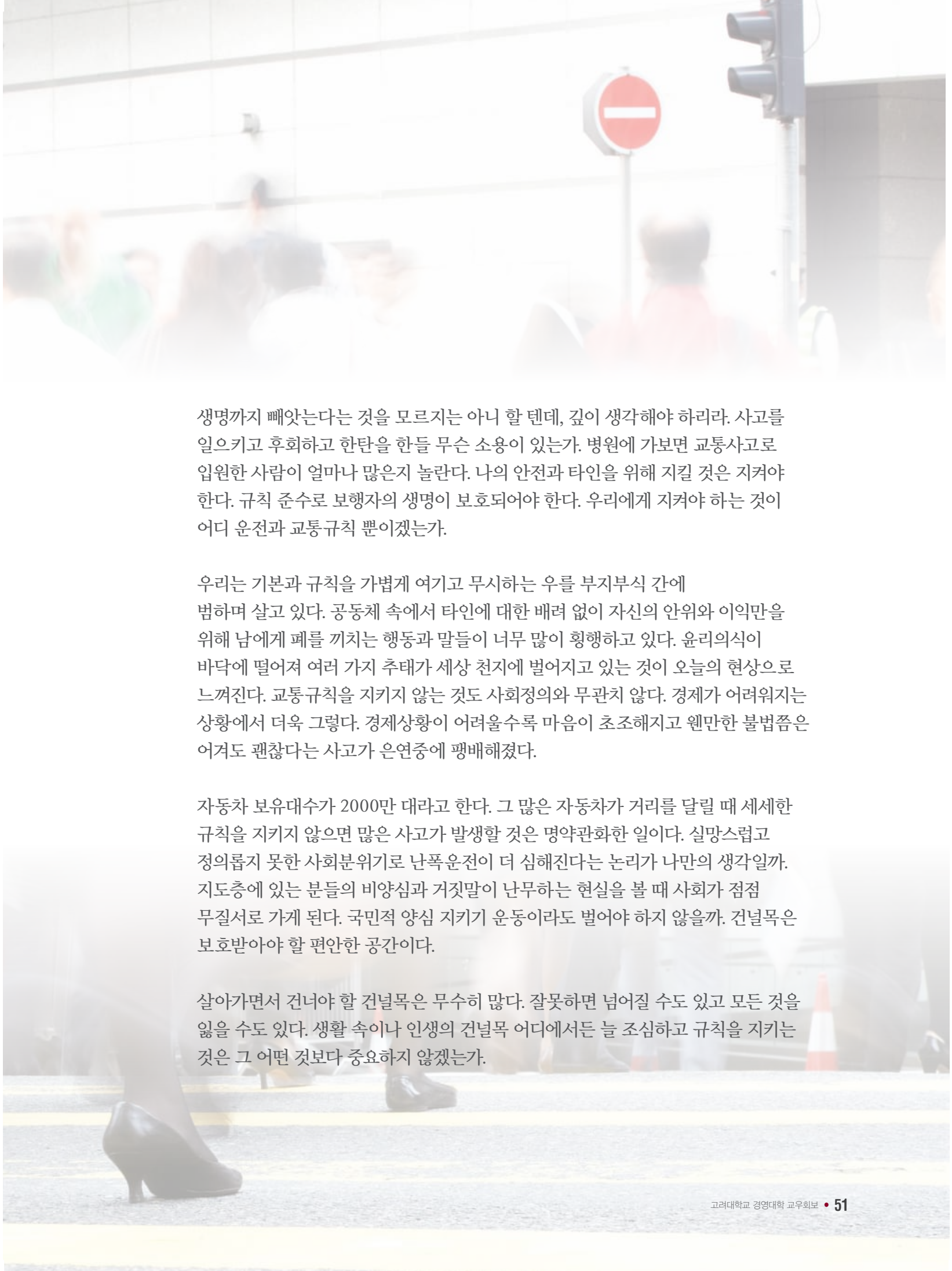
황인강 | 상61·수필가·ROTC 3기·롯데그룹 임원역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난여름 어느 날, 아파트단지 외곽로의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던 나는 차량 신호등이 정지로 바뀌고 보행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져 건널목을 마음 놓고 건너려고 발을 내밀었다. 그 순간 왼쪽 3차선을 따라 봉고 한 대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급히 걸음을 멈추었다. 속력이 붙은 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내 바로 앞으로 획 지나쳤다. 내가 조금만 더 발을 내디뎠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달려오는 차를 발견했기에 다행이지 그대로 차와 충돌 할 뻔했다. 위험천만했다. 앞만 보고 건너려 했으면 사고가 났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앞으로 나간다. 그 습관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도 일단은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야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이런 경험 두 번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유치원생들이 길을 건널 때 원손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길 건너는 교육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교통 규칙에 대해 공부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머리로만 알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많은 규칙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 간혹 벌어지는 교통사고 현장이다. 요즈음 일부 운전자들은 좌·우로 회전할 때 방향 표시등을 안 켜는 경우가 너무 많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교통수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운전자의 의무이고 책임인데 왜 깜박이를 켜지 않을까.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 규칙을 안 지키는 것은 자기와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아니 할 텐데, 깊이 생각해야 하리라. 사고를 일으키고 후회하고 한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병원에 가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놀란다. 나의 안전과 타인을 위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규칙 준수로 보행자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것이 어디 운전과 교통규칙 뿐이겠는가.

우리는 기본과 규칙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우를 부지부식 간에 범하며 살고 있다. 공동체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과 말들이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다. 윤리의식이 바닥에 떨어져 여러 가지 추태가 세상 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으로 느껴진다.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회정의와 무관치 않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 웬만한 불법쯤은 어저도 괜찮다는 사고가 은연중에 팽배해졌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2000만 대라고 한다. 그 많은 자동차가 거리를 달릴 때 세세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실망스럽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분위기로 난폭운전이 더 심해진다는 논리가 나만의 생각일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비양심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현실을 볼 때 사회가 점점 무질서로 가게 된다. 국민적 양심 지키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건널목은 보호받아야 할 편안한 공간이다.

살아가면서 건너야 할 건널목은 무수히 많다.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생활 속이나 인생의 건널목 어디에서든 늘 조심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장군동 다릿걸

김진하 | 상66 · 시인

내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한 시절이었다.

마산 장군동 다릿걸에 국방색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무학산에서 굶어 온 갈비를 한 지게 걸쳐놓기도 하고
삭정이를 새끼줄로 둘둘 묶어 한단 두단 쌓아놓고는
천원이요 이천원이요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

어쩌다 임자를 만나면 신이 나서 침을 손에 뿜 빨아
지전을 세어보고 꼬깃꼬깃 쌈지에 구겨넣고 기분이
좋아 가다가 탁배기 한 잔 하고 암탉이라도 한 마리
사서 집으로 가는

지금은 뒷산에만 가도 지천으로 깔려있는 갈비며
여기저기 꺾어져 나뒹굴고 있는 삭정이들을 보면
참으로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뒷산을 갈 때마다 갈비와 삭정이들을 보면서 어릴
때의 장군동 다릿걸이 생각나 고향으로 달려가고싶은
생각이 불현듯 나기도 한다.

2020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0.1.1~2020.12.31 기준)

* 오기(誤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교우회로 연락 바랍니다(02-922-3762)

<500만원>

57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1학번	최오길	자문위원
65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65학번	허광수	자문위원
67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69학번	최상영	자문위원
72학번	구자열	자문위원
72학번	김 윤	부회장
72학번	허진수	부회장
74학번	승명호	부회장
74학번	정몽원	회장
75학번	박유상	부회장
75학번	안영일	부회장
75학번	이웅열	부회장
75학번	허경수	부회장
76학번	이 범	부회장
77학번	이만득	부회장
80학번	정몽규	부회장
89학번	정의선	부회장

<300만원>

79학번	장치평	부회장
80학번	이선웅	부회장
81학번	박정원	부회장
92학번	김지웅	부회장

<100만원>

63학번	어윤대	고문
65학번	김신경	자문위원
66학번	황병조	자문위원
66학번	박성훈	자문위원
70학번	나완배	명예회장
70학번	김광식	부회장
70학번	이창희	부회장
70학번	한대근	부회장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72학번	황구연	부회장
73학번	김창수	부회장
73학번	정기련	부회장
73학번	황흥주	부회장
74학번	강호갑	부회장
(익명)		
78학번	이영호	부회장
79학번	김 정	부회장
79학번	이동열	부회장
80학번	변대현	부회장
80학번	정학현	부회장
81학번	박수근	감사
82학번	여용동	부회장
82학번	최준영	부회장

(익명)

85학번	황영달	감사
87학번	홍종성	부회장
88학번	전찬혁	부회장
89학번	이동섭	부회장
90학번	송승민	부회장
90학번	최창규	부회장
90학번	한상일	감사
90학번	형윤준	부회장
92학번	이성욱	부회장
94학번	김형인	부회장
(익명)		

<50만원>

53학번	이윤재	자문위원
55학번	유상욱	자문위원
59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2학번	김병건	자문위원
62학번	최부웅	상임이사
63학번	조원영	자문위원
64학번	강동식	상임이사
66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67학번	신동언	상임이사
68학번	신준수	상임이사
72학번	홍형기	상임이사
75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학번	손무성	상임이사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학번	서학식	상임이사
79학번	이상현	상임이사
79학번	정몽진	상임이사
79학번	조창명	상임이사
80학번	김용현	상임이사
80학번	김윤정	상임이사
81학번	김언수	상임이사
81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81학번	송영섭	상임이사
81학번	송재현	상임이사
81학번	홍홍식	상임이사
84학번	배형근	상임이사
85학번	김정호	상임이사
86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93학번	강준환	상임이사

<30만원>

70학번	한인호	상임이사
74학번	김동선	상임이사
79학번	최수규	상임이사
79학번	추경호	상임이사

<20만원>

63학번	이연송	자문위원
63학번	전현찬	상임이사
69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69학번	이재선	상임이사
69학번	이정주	상임이사
70학번	조한용	상임이사
71학번	이세형	상임이사
71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72학번	김문기	상임이사
72학번	최철기	상임이사
74학번	이규범	상임이사
92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92학번	조명훈	상임이사
97학번	김영일	상임이사

<10만원>

자문위원

58학번	유취성
------	-----

이사

53학번	이호용		
54학번	김진배		
55학번	김기인	박은양	
58학번	함명돈		
59학번	강창석	권상진	이차욱
60학번	김선휘	이웅휘	
61학번	김길남	박순자	채규학
62학번	송준일	정준수	
63학번	김형덕	이승철	이영무
64학번	정제성		
65학번	이창윤	최병일	
66학번	김홍재	신현옥	양치수 임혁기
67학번	김용동		
68학번	성지환		
69학번	맹인재	신현웅	조현룡
71학번	권관순	김영규	이유식 이철영
	최광균	최윤도	
72학번	강순석	강태준	남덕우 문덕인
	박만우	이원창	한충열
73학번	김순배	현기춘	홍문순
74학번	김승길	유대성	윤명상 홍영호
75학번	김석태	김우진	김창경 김창우
	백원남		
76학번	김덕만	박원규	배유현 서윤덕
	이법호	이원직	장진원
77학번	홍 윤		
78학번	경석현	박원현	박주병 은민수
	정동창	홍 승	홍민표
79학번	김덕년	민경섭	박진호 방용원
	서동린	안성경	정준돌

80 학번	서 정	정덕인	정백조	
81 학번	김재범	박지수	박창수	유한수
	이상혁	이훈복	황 혁	
82 학번	김성철	김일희	장태수	정교순
84 학번	김준호	박근용	윤귀만	이순규
85 학번	손순진	임경훈	임 옥	정병욱
	조남석			
86 학번	민왕일	양근섭	오인환	정종갑
	황택현			
89 학번	김평국			
04 학번	주성휘			

일반교우 <3만원>

48 학번	황현수			
51 학번	전윤자			
52 학번	김영섭			
53 학번	엄기정	정 환		
54 학번	김동진	이종은	이종환	조태규
	조해연	태호팔		
55 학번	권중택	남치현	신문철	정영호
56 학번	강경구	김지영	신명철	백공용
	변동수	윤길립	이기홍	이연상
	전상훈	조해균		
57 학번	구인분	김문석	김성균	김재근
	손영갑	이병길	정기원	
58 학번	권영직	김영식	남태현	박성업
	사윤진	선환규	오덕환	이종득
	이종철	천정호		
59 학번	강해홍	권병용	김상문	김주환
	노규재	박오학	송운한	송창순
	윤석문	이광조	이기홍	이윤제
	이창용	임종환	한수영	홍윤근
60 학번	구자욱	김광평 (6만원)	김만용	노수범
	성윤경	신준호	윤재순	이일규
	정성진	조대작	조시연	최덕형
	최익호	하정일	한국언	한기정
	황길웅			
61 학번	김도민	김소현	김순구	김윤장
	김택원	김활자	박무용	박엽업
	박윤서	박진자	박청자	박화신
	신현성	안희민	엄무성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윤태희
	이경순	이근창	이봉현	이 완
	이원태	이재영	이창근	이학주
	전규수	조 경	조승자	채창현
	최동권	한종구	황인강	
62 학번	구자웅	김광태	김종순	김종진
	김한중	배영일	백호취	서오석
	안기정	유병하	이순영	이인영
	한상욱	한현수		

63 학번	김소부	김시균	김일웅	김지창
	남 훈	박규환	박종일	백선기
	오순일	육규석	윤익순	이천우
	전남복	정완영	한건수	황공석
64 학번	고병선	김광수	김상규	김철주
	김춘식	민선용	박재길	송병열
	신준철	유형식	유재현	이경희
	이용규	이형탁	조종래	허석도
	현봉길	홍현묵		
65 학번	강병호	김명규	박완근	박태인
	이경찬	이정수	장세공	
66 학번	김영진	김상진	김웅한	김진하
	박민규	박용혁	염수열	오창석
	장철기	정동준	정연동	
67 학번	김 택	윤정섭	이계남	이장운
	조용건	최종철	한기석	한상규
68 학번	박종성	신동원		
69 학번	김영호	윤영수	정영목	정택모
70 학번	강영구	구분능	박병천	이천식
	제 철			
71 학번	강동석	박용우	박장훈	
72 학번	고재영	김성욱	김영만	김영식
	김종현	류병기	박동원	박홍국
	장석산	전종환	정우성	조승식
	최원철	최창현	황순기	
73 학번	김교웅	손대정	이인철	한진형
74 학번	김성화	박영식	박용운	이철범
	천두식			
75 학번	김우태	김호섭	김희환	박세현
76 학번	신동열	이봉용		
77 학번	김대철	이찬근	임동하	
78 학번	김석민	김일웅	김정재	김태완
	박수영	신학기	유승식	이강석
	정세종			
79 학번	강창용	권홍국	김명국	김현중
	류병완	서종산	양원목	정운창
	최계수	황보평		
80 학번	김병조	김태현	이세호	정창식
	최유성	최윤식		
81 학번	김신철	김용운	김한근	남익우
	박순범	오주환	이심훈	
82 학번	김지환	박종원	심재홍	오창희
	이경호	이동환	이성우	정지호
83 학번	곽병현	김민호	김윤호	윤여실
84 학번	강운구	강학수	김경중	김민권
	김병남	김익석	김영근	김용환
	김진성	김홍석	남택진	박광구
	박기호	박병성	박정민	박현철
	박호준	서신규	윤영원	이경섭
	이용석	이정근	이종우	이창구
	임진균	정진국	조흥준	최병권

85 학번	허용모	홍제연		
	강황배	기승도	김창수	박승하
	박종국	신강영	신호섭	심성도
	이호현			
86 학번	강신재	김경복	김석영	김좌영
	김준성	류재열	박진영	서동욱
	이종태	이중현	표민수	황인하
87 학번	강명원	김사원	이덕희	이상식
	이창환	임제홍		
88 학번	김심덕	김진호	하종문	
89 학번	김무경	김영필	김종민	박병영
	서계원	성기승	정윤근	최강락
90 학번	강승모	김형기	민준선	박상규
	염창열	이은기	장원석	
91 학번	조성일			
92 학번	김대형	김재형	김창영	서동휘
	정선홍			
93 학번	김도희	김하석	안병원	윤성재
	황경하			
94 학번	김도윤	박병도	박형현	방상호
	서경덕	유승경	이강진	임태봉
	허도영			
95 학번	강덕영	신재욱	이규열	이희윤
	지재홍			
96 학번	김용겸	백웅조	손희중	이명준
	이준희	정태원		
97 학번	강민수	이민하		
98 학번	이재등	최종민		
00 학번	박 진			
03 학번	오병원	윤하국	추창화	
04 학번	김형태	송 진	이상홍	
05 학번	박종환	이근호	이현호	
06 학번	이준영	홍 준		
07 학번	손상엽	이정기		
08 학번	신재호			
09 학번	박혜원	송명근	이승재	전태희
	정석화	한상영		
10 학번	김강민	김도형 (6만원)	김명곤	
11 학번	송웅기	염정우	이석영	한은경
12 학번	황지민			
13 학번	오태훈	진민영		
14 학번	최우림			
15 학번	손다솔	최재호		
16 학번	김솔이			

학번별 분담금

62 학번	500,000
64 학번	500,000
66 학번	500,000
67 학번	500,000

69학번 500,000
70학번 1,000,000
71학번 1,000,000
72학번 1,000,000
73학번 1,000,000
74학번 1,000,000
75학번 1,000,000
76학번 1,000,000
77학번 1,000,000
78학번 1,000,000
79학번 1,000,000
80학번 1,000,000
81학번 1,000,000
82학번 1,000,000
83학번 1,000,000
84학번 1,000,000
86학번 1,000,000
89학번 1,000,000

평생회비<30만원>

69학번 황규진
01학번 황성욱
09학번 박종현

학번확인불가(동명인)

김영규 100,000
김신희 30,000
한홍섭 30,000

발전기금

53학번 이호용 500,000

2021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1.1.1~2021.4.22 기준)

<500만원>

72학번 허진수 부회장

<300만원>

84학번 이용훈 부회장

<100만원>

64학번 강동식 부회장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92학번 강정훈 부회장

<50만원>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10만원>

63학번 이영무
74학번 김승길
78학번 류한호

일반교우 <3만원>

55학번 남치현
56학번 신명철
59학번 강창석 강해홍 박형문 이의방
60학번 박상화
62학번 김효명 이호용 한상욱
63학번 정완영

64학번 홍현묵
65학번 이경찬
66학번 성순환
77학번 임동하
81학번 이심훈
86학번 류재열
91학번 이상수
96학번 이명준
00학번 박진
05학번 강종범
07학번 심윤보

학번확인불가(동명인)

김민아

감/사/합/니/다.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 - 910009 - 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의 경영대와 경영대 교우회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0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일반연회비

달성

82.4%

목표 16,500,000 원

실적 13,590,000 원

기별분담금

달성

97.5%

목표 20,000,000 원

실적 19,500,000 원

임원분담금

달성

86.3%

목표 200,000,000 원

실적 172,630,000 원

TOTAL

12월 31일 기준

목표 236,500,000원

실적 205,720,000원

달성

87.0%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